

낭만적 사랑의 신화와 역사

- 사회적 감정의 근대성과 그 비판적 계보학

최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사랑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자 경험으로 치부되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의 형성, 나아가 사회의 구성으로 이어지는 집합적이고 공적인 심성이라 할 수 있다. 대략 18세기를 전후해 등장한 이 감정의 구조는 근대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 소속감을 갖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심리적 구성물이었다. 그러나 문화사 전반을 통해 사랑은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체험으로 포장되어 왔고, 특히 '낭만적 사랑'은 이 같은 풍조를 강화시키며 현대까지 이르렀다. 사랑은 이성애적 커플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정성의 교류이며, 결혼을 통해 제도적으로 공인받고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이다. 소위 '낭만적 사랑의 신화'라 부를 만한 이 도식은 근대 시민사회가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감응적 장치로서, 21세기 탈근대의 현재에는 그 영향력을 점차 상실해 가는 중이다. 이 글은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역사적으로 조감함으로써 결혼과 가족, 출산이 어떻게 근대 시민사회의 탄생과 지속에 관련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의 전망을 타진해 본다.

주제어 : 낭만적 사랑, 감정의 구조, 사회적 심성, 근대 시민사회, 감응장치

1. 사회적 감수성의 구조변동

최근 한국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연예인이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평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큰 소망을 품고 있던 그녀는, 단지 아이를 얻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를 품고 인공수정을 결심했다고 전해진다. 비혼과 출산에 대한 보수적 통념이 아직 잔존해 있는 한국사회는 이 소식을 연애가 가십거리 이상의 성찰적 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¹⁾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가능한 선택지’로 부각된 요즈음의 상황에서 비혼과 출산의 결합은 세간의 통념을 뒤흔드는 일종의 사회적 사건으로 인식된 까닭이다. 2019년 현재 국내 출산율이 0.92 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저출산 사회에서 이러한 인식의 충격은 근대 가족과 사회제도의 종언을 드러내는 증거처럼 보인다. 소설과 영화에서 흔히 연출되었던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대중적 주제는 어느새 ‘결혼 없는 출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가족 없는 사회’로 귀결되는 형국이다.²⁾ 이 같은 시대의 새로운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과 결혼, 가족의 사회사를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사랑은 그 중심에 놓인 문제적 관념이자 감정이다. 결혼과 가족의 구성, 출산이라는 일련의 관습적이고 사회적인 행위과정들은 개인 사이의

1)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가 쏘아올린 화두”, 『경향신문』 2020년 11월 19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81703001&code=940100 (검색일: 2020.12.28.)

2) 사유리가 출산을 원했기에 이를 가족의 해체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녀가 동양인 정자 제공자를 찾지 못해 서양인의 정자를 인공수정에 사용했다는 기사를 두고 벌어진 찬반양론은 전래의 가족주의 관념이 사회 속에 아직 공고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사유리가 ‘서양인 정자’ 기증받은 게 잘못된가요?” 『서울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8500152&wlog_tag3=naver (검색일 2020. 12.31) 하지만 서구 여느 사회에 못지않은 출산율 하락과 더불어, 비혼 및 비출산이 청년층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족 개념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정서적 유대관계로서의 사랑을 필수적인 계기로 요청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사회적 관계의 기저에 깔린 감정임을 수긍하는 한편으로, 사랑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사랑은 객관화할 수 없는 사적 개인 간의 주관적 관계이기에 합리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공학적 관점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도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의 그치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연애라는 사실은 사랑을 둘러싼 신화가 우리 곁에 분명하고도 견고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증거하고도 남는다. 더욱이 개인적 관계로서의 사랑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인을 요구하고, 결혼이나 가족, 나아가 출산의 문제 등을 더불어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개인화된 탈근대적 사회에서 사랑이 여전히 공동체의 집합적 삶에 포함된 관념이자 감정임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랑은 개인들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명명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태도와 관습, 규범과 질서에도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사랑을 글로 배운다”는 우스갯소리를 떠올려보자. 감정의 교류가 요구되는 연애관계를 책에서 읽은 듯 문자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한 조소를 담는 이 우스개는, 그러나 실제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사랑의 감정은 자연스런 성정의 발로라기보다 사랑이라는 관념과 언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습속, 즉 코드를 실연하는 행위에 가까운 탓이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1774)으로 유발된 청년들의 자살 충동을 ‘베르테르 효과’라 부르듯이, 근대 독서대중이 형성된 이래 우리는 삶이 텍스트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삶을 견인하는 풍경을 도처에서 목격해 왔다. 이는 단지 모방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사고와 행위가 특정 텍스트를 기반으로 일정하게 전형화되고 구성되는 사회적 구조가 실존함을 시사한다. 관건은 이런 현상이 사고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수성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요컨대 우리는 텍스트에 기반하여

느끼고 감각하며 자신을 규정짓는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인간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내면화된 코드화의 산물이며, 따라서 해당 사회의 구조를 반영·유지시키는 감응적 장치(affective apparatus)라 할 만하다.

낭만적 사랑은 근대 서구의 시민사회를 기저에서 떠받치는 정서적 표현물이었다. 탈근대를 구가하는 오늘날에도 ‘로맨틱 코미디’와 같은 소재와 주제가 각종 매체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200년 전의 감수성을 내장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비혼출산의 사례가 보여주듯, 오늘날은 사랑 없이도 출산하고, 전통적 가족의 의례를 제거한 채 사회의 존속 또는 변형이 목격되는 시대다. 일종의 감수성의 구조변동이라 할 만한 이러한 사태를 개념화하기 위해 이 글은 낭만적 사랑의 역사·사회적 특징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로써 사랑이 어떻게 근대의 사회적 감응장치로 기능했는지 분석해 보고, 탈근대적 현재의 지형 속에서 생겨나는 변전의 양상을 전망해 볼 것이다.

2. 사회적 감응장치로서의 사랑

데카르트의 코기토로 대표되는 인간 이성에 대한 정의는 오랫동안 근대성의 주요한 계기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철학적 이성의 근대성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적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짓는 흐름이 존재해 왔다. 감수성의 존재로서 인간의 특수성은 때로는 이성의 보충물로 폄하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성과 경쟁하거나 또는 이성을 근저에서부터 압도하는 맹목적인 힘으로서 경원시되거나 경배 받아 왔다. 무엇보다도, 대중이 사회 세력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근대 사회에서 인간의 정서적 차원은 그저 인격의 한 자질로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견인하며 지속시키는 상호작용의 관여물로 취급받게 되었다.³⁾ 이성과

합리가 근대성의 주축을 이루는 순간에서조차 감각과 감성의 차원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삶에 관여하며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맺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로서 간주되었던 것이다.⁴⁾ 한 마디로, 감정은 논리적 연산을 넘어서는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를 축조하는 원동력이다.

감정이 사회적 감응장치라는 명제는 감정의 구조(structures of feeling)를 참조함으로써 보다 선명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대개 제도나 이데올로기, 전통을 객관화된 사회적 완성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랑그와 파롤의 관계와 같이, 주관적이고 체형적인 과정, 사유에 대비되는 감각과 감수성의 영역,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은 인식의 대상에서 추방되거나 축소되곤 한다.⁵⁾ 그러나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이 같은 사회적 형성물들은 언제나 변화를 겪고 있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주변과 중심 사이에서 항상 이행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핵심은 그 변화와 이행의 사건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우리로 하여금 특정 사회구성체에 속해 있음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연관된 정체성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같은 사건성을 통해 체험되고 지각되는 의미와 가치를 통해서이다. 세계와 자기의 상호관계를 무의식적 감각 속에 받아들이는 이 과정 및 사례들은 감응(affect)의 차원에서 비로소 파악된다. (무)의식적 감정의 흐름을 체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개인은 특정 사회와 세대, 혹은 문화적 집합체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과 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⁶⁾ 감정을 개별적이고 순간적인 정서적 유실물이 아니라 집합적이고

3) 잭 바바렛 엮음, 『감정과 사회학』, 박형신 옮김, 이학사, 2009, 9쪽.

4) 가령 프랑스 혁명과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은 사회계약론이라는 새로운 근대적 합리성의 이성적 측면과 더불어, 대중을 동원하고 한데 묶어 공동의 소속감으로 결집시키는 감성적 측면을 필연적으로 포함해야 했다. 윌리엄 M. 레디, 『감정의 항해.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 혁명』, 김학이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제6장.

5) 레이먼드 윌리엄스,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박만준 옮김, 지만지, 2009, 207, 212-213쪽.

6) “감정은 집합적인 문화적 범주와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의 사소통이다.”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 외 옮김, 이학사,

지속적이며 (무)의식적인 사회적 감응의 양태로서 고찰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무)의식적 감정의 구조는 일종의 사회구성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⁷⁾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은 그 같은 사회적 감응의 장치다. 대체로 18세기 이래 서구 사회에서 생겨난 특수한 감수성을 가리키는 이 개념의 탄생사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전복시킨다. 즉 영구불변하는 본질로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상의 특정 시대와 특정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사랑에 대한 관념이 만들어지고 실천되었다는 사실이 그렇다. 개인과 개인, 특히 이성애적 커플 사이에서 성립되는 감정적 나뉘어라는 통상의 정의는 이 용어가 근대 이전에 어떤 식으로 통용되었는지 살펴볼 때 그 역사·사회적 특수성을 구별할 수 있다.

우선 중세의 사랑에 관해 검토해 보자. 서구 중세에서 사랑이란 말은 거의 사용되지도 않았거니와 지금과 같은 의미로도 쓰이지 않았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식적 문화에서 인간이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곧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신(神)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은 실상 신이 인간을 향해 내려보낸 사랑의 일부라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기에, 인간은 오직 신 안에 거함으로써, 그리고 신을 위해 사랑을 행함으로써 신의 사랑을 본받는다. 진실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의존에 다름 아닌 것이다.⁸⁾ 부모와 형제, 부부 사이

2014, 20-21쪽. 무의식과 감응에 대해서는 최진석, 『감응의 정치학: 코뮌주의와 혁명』, 그린비, 2019, 제1장을 보라.

7) 이렇게 (무)의식적 감각의 사회적 조형성에 대해 우리가 참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대한 알튀세르의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근대 국가에서 국민형성이란 개인의 무의식적 믿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조항하는 다양한 비폭력적 장치들, 가령 교육이나 종교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에 의해 구조화된 효과를 가리킨다. 루이 알튀세르, 『재생산에 대하여』, 김용권 옮김, 동문선, 2007, 349-410쪽. (무)의식적 관념과 믿음의 특정한 배치를 끌어내는 이 같은 장치(dispositif)의 개념은 푸코의 사유를 발전시킨 아감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르조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을 위한 서론』, 양창렬 옮김, 난장, 2010, 33-36쪽.

나 부모자식 사이의 가족에 대한 사랑도 이 같은 신의 사랑을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 믿음이 있었기에, 근대에서처럼 연인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란 본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랑이 신에게서 유래했으며 또 신을 향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그 같은 근원적인 사랑의 진정성을 투사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 연인에게 기울어지는 유일무이한 사랑이란 독신(瀆神)의 증표라 할 수 있고, 저급한 쾌락의 흔적에 불과하다.

가족과 결혼에 대한 관념도 궤를 같이 한다. 서구 중세사회에서 결혼은 기독교적 의례에 속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결혼 없이 가족을 이루어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촌락공동체에서 이성애자 커플을 부부로 맺어줄 때는, 부의 증식과 노동의 분담, 친족의 확대라는 실질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렇기에 교회의 공식적 축복이 없더라도 해당 공동체 내에서 커플은 부부로 받아들여졌으며 일생을 함께 했던 것이다.⁹⁾ 사정은 지배층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남녀 간의 분별이 엄격했던 기득권 사회에서 부부로 결합하는 커플은 서로에 대한 애정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가족 및 가문의 정략적 선택에 따라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런 결혼의 형식은 대단히 일반적이었을 뿐더러, 유아기에 부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리 정혼자를 짝지어놓는 풍조는 거의 규칙에 가까울 정도였다.¹⁰⁾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결혼이란 결국 자식의 생산으로, 다시 말해 가문의 상속자를 배출해내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했기에 개인의 감정이나 결심은 중요하지 않았다.¹¹⁾ 개인의 출현이 근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문화적 현상임을 지적하는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¹²⁾ 정서적 애착관계의 대표적 사례로서 연애와 결혼이 중세인들에

8) 사이먼 메이, 『사랑의 탄생. 혼란과 매혹의 역사』, 김지선 옮김, 문학동네, 2016, 171쪽.

9) 로베르 들로르, 『서양중세의 삶과 생활』, 김동섭 옮김, 새미, 1999, 106쪽.

10) 아일린 파워, 『중세의 여인들』, 이종인 옮김, 즐거운상상, 2010, 80쪽.

11) 들로르, 『서양중세의 삶과 생활』, 116쪽.

12) 아론 구레비치, 『개인주의의 등장』, 이현주 옮김, 새물결, 2002, 제3장; 리하르트

게 근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궁극적으로 낭만적 사랑이 지극히 근대적 사건이었음을 단언케 하는 근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낭만적 사랑의 징표를 하나 예시해 보자. 『돈 키호테』(1605/1615)가 그것이다. 영락한 가문의 옛 귀족 돈 키호테는 평생 만나보거나 목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귀부인 돌 시네아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험의 여정에 오른다. 자신을 중세의 기사로 착각한 주인공이 우스꽝스러운 싸움과 편력을 벌이는 이 소설은 근대 초기에 ‘열정으로서의 사랑’(love as passion)이 세상에 등장하고 유포되던 광경을 잘 보여준다. 신에게 독점적으로 바쳐지던 사랑이 인간을 향해 지상으로 내려오고, 그 사랑은 병적인 열정에 가득 차 따분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한 편의 이야기로 바꿔놓는 것이다. 르네상스 이후 신을 중심으로 돌던 세계는 이제 인간을 향해 정향되었고, 예외의 데카르트적 이성(理性)이 가장 중요한 삶의 척도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예외의 하나로서, 이성 바깥에 놓인 정념이 합리성의 하부에 잠복하게 된다. 문학적 글쓰기를 매개로 한 낭만적 사랑이라는 삶의 드라마가 그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사랑, 개인으로서 자아의 열정이 타오르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¹³⁾ 이처럼 사랑이라는 개인의 정념은 근대에 비로소 나타난 문화현상에 다름 아니었다.

반 뮐렌, 『개인의 발견』, 최윤영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5, 22-23쪽.

- 13) 푸코는 『돈 키호테』를 고전주의 시대의 종말이자 근대의 시작으로, 도표에 의해 세계를 재현의 척도에 올라매던 시대로부터 불투명하고 모호한 욕망이 작동하는 시대로의 이행으로 자리매김한다. 문학은 그 같은 폭력적인 열정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였던 셈이다.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2012, 302-303쪽.

3. 낭만적 사랑의 문법과 근대 사회

18세기에 접어들며 낭만주의가 당도했다.¹⁴⁾ 성급하게 사랑의 찬가를 부르기 전에 그 시대에 이르는 문화적 정황을 살펴보자. 서적출판의 대량화를 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1444년 발명되었고, 야만인과 구별되는 문명인의 예법을 가르친 카스틸리오네의 책이 1528년 출간되었다. 1688년 명예혁명이 성공함으로써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개념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740년 새뮤얼 리처드슨의 소설 『파멜라』가 대중 앞에 등장했다. 소설은 정의상 허구다. 하지만 ‘그럴 듯한’ 허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窓)이 된다. 신분의 차이에 관계 없이 모든 것을 내던지며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풀리자마자 세상은 그것이 진리라고, 인생의 진실이라고 떠들기 시작했다. 18세기 이래 소설내지 문학은 사랑이라는 열정의 도취, 병적인 열망을 일으키는 ‘위험한 사물’로 간주되었다.¹⁵⁾ 이에 따라 귀족들의 자녀 교육에서는 공식적으로 퇴출되어야 했으나, 동시에 그 누구도 몰라서는 안 되는 인생의 지침서로 각광받기 시작한다. 예컨대, 19세기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의 한 장면을 읽어보자.

14) 예술사조로서의 낭만주의는 동시에 18세기 이래 근대 전체를 규정짓는 문화적 분위기를 뜻한다. 1760년부터 1830년 사이에 부상한 이 거대한 운동은 유럽사에 전무후무한 단절을 낳았고, 사회역사적으로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의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양가적이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이 운동을 정의하는 요소는 믿음과 열정이라는 주관적 태도이자 행위의 일관성에 있다. 이샤야 벌린, 『낭만주의의 뿌리』, 강유원 외 옮김, 이제이북스, 2005, 제1장.

15) 남성중심적인 가부장 사회의 규율을 이탈하는 소설은, 설사 결혼과 행복으로 귀결된다 해도 당대의 공식적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략적 교환’의 대상으로 양육되어야 했던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지배적 급계를 넘어선 성적 모험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슈테판 볼만,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 조이한 외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12, 121-122쪽. 리처드슨의 『파멜라』가 불러일으킨 파장이 가족과 결혼의 위반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을 자극한 것인지, 혹은 가족과 결혼으로의 복귀를 다룬 점에서 체제순응적인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문학사의 논쟁거리다. 이언 와트, 『소설의 발생』, 전철민 옮김, 열린책들, 1988, 제5장.

소설책은 어려서부터 좋아했다.
책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대신해 주어
리처드슨이나 루소의
허구에 깊이 빠져 들었다.
[...]
오래전부터 그녀의 상상은
안일과 우수에 불타오르며
숙명적인 영혼의 양식을 갈구하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마음 속의 고뇌가
그녀의 젊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를
[...]
그리고 기다림은 끝났다...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말했다, 바로 저 사람이야!¹⁶⁾

어릴 적부터 프랑스 연애소설 읽기를 좋아했던 타치야나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자신에게 찾아올 사랑에 대한 기대로 달떠 오른 상태였다. 이성을 사귀어 본 적이 없었지만, 독서를 통해 이미 ‘준비된 연인’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수도에서 온 미지의 남자 오네긴이 시선에 들어오게 되자 그녀가 즉각 사랑에 빠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노릇이다. 사춘기적 정념의 유동이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타치야나가 자신의 감정을 소설 주인공들에 비교하고, 소설책이 알려준 바에 따라 연애의 공식을 실천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꿔 말해, 소설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연애의 문법책’ 역할을 맡았다. 요컨대 사랑의 의사소통 및 행위모델을 소설이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¹⁷⁾

16) Александр Пушкин, “Евгений Онеги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5, Наука, 1978, pp. 42, 51.

17) 니콜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정성훈 외 옮김, 새물결, 2009, 37쪽. 독서와 사회적 의사소통의 고전적 사례는 18세기 러시아의 귀족문

그렇다면 낭만적 사랑의 공식이라는 것도 추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명제들이 도출될 법하다. 이른바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구축하는 계율들이다.¹⁸⁾

(1) **사랑은 우연한 운명이다** — 처음에는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필연적인 만남이었음 고백하는 언사는 소설과 드라마, 영화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사다. 사랑은 막연히 예감될 순 있어도,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다. 마치 ‘계시’처럼 사랑은 우리를 덮치는 것이다. 천생연분은 평범한 길거리나 골목, 일상의 어느 장소에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변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운명의 징표를 읽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랑은 우연을 가장한 채 접근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만이 그것의 운명성을 식별할 수 있다.

(2) **사랑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다** —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쏘는다는 속담이 있다. 주변사람들이 무엇이랴 말하든 온전히 둘만의 관계가 형성된다. 제3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랑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진 ‘나’ 혹은 그/녀가 아닌 타인은 알 수 없는 비

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Юрий Лотман, *Беседы 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Быт и традиции русского дворянства (XVIII - начало XIX века)*, Искусство-СПб, 1994. 한편, 문학작품은 이 같은 사회적 소통의 양상들을 가장 실감있게 표현해 낸 형식이었다. 홍길표, 「근현대의 사랑 혹은 낭만적 사랑의 발명 — 괴테의 『친화력』」, 『괴테연구』 23호, 2010, 30-31쪽.

18)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낭만적 사랑의 감정적 계기와 전개에 대해 소설의 형식으로 출판한 바 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만한 연애의 과정들, 가령 첫 눈에 반하기부터 ‘밀당’하기, 고백과 승낙, 결혼, 출산과 양육 및 외도에 이르기까지, 낭만적 사랑의 전체 여정을 문학화하여 우리 앞에 보여준다. 알랭 드 보통,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정영목 옮김, 청미래, 2007;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김한영 옮김, 은행나무, 2016. 본문에서 제시한 6가지 명제는 이 책들을 부분부분 참조하며 만들어졌다.

밀이 생겨난다. 둘만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화 속에 시간은 따로 흐르고 공간은 세계와 분리된다. 사랑은 배타적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은밀한 사랑은 공공연히 노출되고, 모두가 배우고 연구하는 패턴이자 코드가 될 수 있다. 연애감정과 행위를 가르쳐 주는 수많은 매체들이 선행하는 탓이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문법을 습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획득하게 되는데, 사랑에 대한 각자의 체험이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정체성이 놀랄 만큼 닮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3) **사랑은 진정성의 체험이다** — ‘눈먼 사랑놀이’ 또는 ‘사랑에 눈멀다’는 표현이 있다. 연인들은 제3자가 못 보는 것 즉 서로의 내면적 진정성을 본다.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들이야말로 눈먼 자들에 다름 아니다. 사랑의 진정성은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이기에 오직 공감하고 믿기만 할 수 있는 의미이자 가치다. 사랑할 때 부딪히는 수많은 난관이 이로부터 생겨난다. 외모와 학벌, 재산, 신분, 나이와 성별까지, 사랑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숙명처럼 주어져 있다. 진정성의 체험은 사랑을 역동적 과정으로 부각시킨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묻고 시험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¹⁹⁾ 사랑이 운명적 사건인 한, 우리는 이 굴레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 사랑이 고통인 동시에 황홀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다소간 신비화되어 있는 이 코드들은, 그 자체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심리의 문제로 여겨질 법하다. 또한 사생활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일상의 문제로 치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코드

19) 외적 기만과 내적 진실 사이의 갈등은 철학사적으로 볼 때, 플라톤 이래 주요한 인식론적 논제를 이루어 왔다. 이는 루소의 시대인 18세기 근대에 이르러 하나의 도덕적 논제로까지 비약했는데, 낭만적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이 감정적 논제로도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앤드류 포터,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노시내 옮김, 마티, 2016, 66쪽.

를 추가로 살펴본다면, 낭만적 사랑을 왜 사회적 감응장치라고 명명하는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사랑의 코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관례이자 규칙으로서, 그것의 실천이야말로 우리를 해당 사회 속의 개인으로 정체화해주기 때문이다.

(4) **사랑은 결혼으로 완성된다** — 17세기까지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행위였다. 교회에 의해 약정된 결혼은 무조건적 사랑을 강요했고, 진심 어린 소통으로서 이성 간의 사랑(연애)은 도덕적 금기에 속했다. 부부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므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8세기로 접어들며 두 개념의 역전적 통합이 이루어진다.²⁰⁾ 유일무이하고 지고지순한 영혼의 짝은 사랑을 통해 만나야 하고, 그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로서 완결되어야 한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듯 사랑과 결혼이 합쳐지지 않고서는 지상의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성스러운 결혼을 깨고 사랑을 이간질하는 모든 외적 유혹들, 자극들은 배척받아 마땅하다. 성숙한 개인들의 결합으로서 결혼은 사랑이라는 마법을 일상 속에서 정복한 사건이었다.

(5)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다** — 결혼이 신성한 결합이라면, 출산은 ‘신의 징벌’(성경)이라거나 ‘종족의 번식’(생물학) 따위로 폄하될 수 없다. 아이는 영혼의 합일을 통해 생겨난 생명의 신비요 삶의 축복이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커플은 정신적 결합이 현실적 결실을 맺는 것을 확인하고 책임의 의무마저 배우게 된다. 아이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마멸되는 사랑을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영구히 지켜주는 영적인 매개체인 것이다. 중세까지 ‘작은 인간’으로만 취급되던 아이들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도 이때부터다.²¹⁾ 인생에서 ‘어린

20) 장 루이 플라드랭, 『성의 역사』, 편집부 옮김, 동문선, 1994, 109쪽.

21) 필립 아리에스, 『아동의 탄생』, 문지영 옮김, 새물결, 2003, 제1장.

시절'이 따로 분리되어 고찰되고, 문학적 회고와 향수의 대상으로 조명 받는다. 어른들의 일상은 아이의 삶에 맞춰 재편되고, 아이들은 가정이 라는 울타리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마침내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6) 가정은 사랑을 보호하는 성역(聖域)이다 — “Home, home, my sweet home!”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가정은 영국인 가장의 신성한 성(城)이다”란 말이 있었다. 그만큼 가정은 타인이, 심지어 공권력도 범접할 수 없는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이었다.²²⁾ 하지만 가정은 또한 ‘공인된 성역’이기도 했다.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으로서 사랑은 결혼으로 성립한 가정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출산과 양육을 통해 사회를 존속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밀한 체험으로서의 사랑이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는 통로가 확보된다. 가정은 커플이 방해받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신성불가침의 성역인 동시에,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기르는 최소단위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간통이 사회적·법적 문제가 되고 매춘과 동성애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²³⁾ 개인적 체험이 공적인 경험이 되고 사랑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법적 절차 속에 정착함으로써, 순수하게 사적인 공간이 국가의 기초 단위로 전도되는 광경이 펼쳐지게 된다.

22) 가정은 가부장적 사회질서의 근간이기도 했다. 필립 아리에스 외, 『사생활의 역사 4』, 전수연 옮김, 새물결, 2002, 148쪽.

23)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공창제를 폐지시킨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결혼과 출산, 즉 사회적 재생산이 위기에 처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었다. 알랭 꼬르벵, 『창부』, 이종민 옮김, 동문선, 1995, 278-279쪽. 사정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쾌락의 만족은 도덕적이기보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금지되어야 했던 것이다.

4. 가부장적 사랑의 사회, 또는 자본주의 정치경제학

낭만적 사랑의 문법을 역사·사회적으로 검토해보면, 사랑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사실 사랑 ‘바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은 커플이 간직하는 내밀하고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적 조건에 깊이 연루된 사회적 사태라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성의 정신적 본질을 실현시키는 사건이라는 낭만주의 철학의 정의와 달리,²⁴⁾ 진정한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 외부의 현실 세계가 면밀히 계산되어야 한다. 비단 재산이나 신분, 문벌과 가족 등의 외적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진정성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결혼과 출산, 양육과 같은 여건이야말로 낭만적 사랑의 본질에 무의식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결정소들이었다.

사랑의 근대성(Modernity)이 성립되는 지점이 여기서다. 낭만적 사랑은 개인적 감정 자체 또는 그것이 반영되는 방식이라기보다 사회적 소통을 위한 소통의 코드로 작동했다. 바꿔 말해, 근대 사회를 성립시키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정서적 동원장치로서 사랑은 고안되었고, 강력한 규범적 공동체인 국가를 통해 장려되고 통제되었다. 수많은 근대 문학작품을 통해 사랑이 신화화되고 통속적 유행을 통해 유포되었던 사실은, 이 같은 사회적 감응이 법과 제도의 빈 공간을 메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관계를 조형하는 주요한 코드화 장치였음을 반증한다. 요컨대, 사랑의 코드는 그에 상응하는 감정들이 형성되도록 촉진하고,²⁵⁾ 그것이 교류되고 관계지어지도록 조형하는 감응장치로 기능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은 역으로 사랑이 왜 오랫동안 사회의 공적 의제로 간주되지 않은 채 사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준

24) 프레더릭 바이저,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김주희 옮김, 그린비, 2011, 192쪽.

25)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21쪽.

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정략과 이해관계에 따른 혼인의 관습은 해당 시대와 공동체에서 연대의 필요성이란 측면에서 정당화되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에서 집단의 재생산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만 결정될 뿐, 개인적 의지나 취향, 판단은 불필요했다.²⁶⁾ 근대 세속사회가 시작되며 집단의 의례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개인 간 왕래와 소통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했고, 개인들을 서로 묶어주는 연대의 형식 또한 새로이 발명되어야 했다. 예컨대 군주와 백성 집단을 묶어주는 왕권신수설은 시민을 개인별로 공동체와 엮어주는, 곧 연대하게 만들어 주는 형식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사회계약론은 이렇게 창안된 연대의 신화이자 이론이라 할 법하다.

낭만적 사랑 또한 마찬가지로 규명되는 바, 더 이상 가문이나 집단의 휘장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없게 되자 그들을 한데 묶어낼 수 있는 유대의 형식으로 사랑이 대두한 것이다.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자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가족을 이루어 사회에 소속되는 이 근대적 연대성은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개인의 내면적 결의와 믿음에 의해 지탱되어야 했고, 그 감응적 유대의 고리로서 낭만적 사랑이 발명되기에 이른다. 근대의 공동체를 묶는 연대의 정치적 형식이 사회계약이라면, 그에 참여하는 개인들을 엮는 연대의 정서적 형식은 사랑과 결혼, 가족의 구성이었던 셈이다. 비록 사적이고 개별적인 특징을 띠었어도, 근대적 개인의 사랑과 결혼, 가족이 객관적 제도를 통해 공적인 것으로서 추진받을 수 있던 이유가 그것이다.²⁷⁾

26) 프랑수아 르브룅, 『옛 프랑스인의 부부생활』, 주명철 옮김, 까치, 1994, 24-34쪽.

27) 근대 초까지 교회에 의해 승인되고 보증받던 개인의 삶은 종교적 매개의 거부 즉 세속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일변했고, 이는 거꾸로 ‘개인의 고독에 맞선 사회화의 감정’을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157쪽. 근대적 사랑의 역설은 이 지점에서 성립하는 바, 사랑을 통해 인간은 개인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주체로 정체화된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구혼과 그에 이어지는 사랑에 의한 결혼이 여기서 자유나 민주주의와 같은 이념들과 결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랑과 결혼은 개인의 권리와 근대 서구세계의 인간애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다. 낭만적인 사랑

그렇다면, 근대적 연대의 정치적 형식에 평행적으로 등장했던 정서적 연대형식으로서 낭만적 사랑의 내적 요소들의 이면을 훑아보도록 하자.

(1) **사적인 것(privacy)과 사생활** — 공(公)적인 것과 대비되는 이 영역은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가 박탈된 상태를 가리켰다. 주로 여성과 아이, 노예들이 담당하던 사적인 것(oikos)은 신체적 욕구와 생존의 필연성에 종속된 삶을 뜻했다. 반면 성인 남성들이 종사했던 공적인 것, 곧 정치(polis)는 자유인들 사이의 평등한 영역이었고, 사적인 것보다 우월한 지대로 평가받았다. 이 같은 가치론적 분할이 늘 작동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근대 초까지는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보다 앞서서 구조가 전형적이었다.²⁸⁾ 이는 생활공간의 분배에서 잘 드러나는데, 가령 농민의 집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용도가 무엇인지를 구분되지 않은 채 가족 전체가 공유하던 공간이었다. 식사나 취침, 접객의 모든 활동이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물질적 여유가 있던 귀족의 경우에도 홀, 갤러리, 살롱 등의 부대공간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사적인 용도보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곤 했다. 근대 초 귀족계급의 과시적 향락은 자신들의 삶을 공적인 전시행위와 동일시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었다.²⁹⁾

근대 시민사회로 접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사적인 것의 관념이 눈에 띄게 분화되었다. 외부인을 맞이하고 용건을 보는 공간이 나뉘어졌고, 가족이 출입하는 내실은 점점 은밀하게 감추어졌다. 19세기 부르주아지

이 없는 곳에서 인간은 가장 드높고 고귀한 가능성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크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옮김, 민음사, 1985, 30쪽.

28)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pp. 33-34.

29) “중세의 혼성적 공간이 분화내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적인 어떤 공간의 출현과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체적으로 공적이고 과시적인 공간이 되어감으로써였다.”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7, 232쪽.

의 아파트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이전의 건축양식과 구별되었다.³⁰⁾ ‘스위트 홈’의 사례처럼, 부르주아 가족에게 가정은 사실상 외부인의 침입이 불가능한 견고한 성채로 표상된다. 특히 부부의 침실은 타인에게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인식되고, 아이들을 위한 방도 따로 나뉘어져 부부와 자식의 명료한 (위계적) 분할관계를 공고히 했다. 근대 가족이란 결국 사적인 것으로서 사생활 관념의 진화를 보여주는 증표에 다름 아니다.

(2) **내밀성(intimacy)과 진정성(authenticity)** — 중세까지 내밀함이란 신과의 교통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신의 사랑이 주어진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은총의 하나로서 알려질 수 없는 비밀에 값하는 것이었다. 반면, 종교개혁 이래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강조되자, 내밀성은 매개 없는 직접성으로 전환된다. 외적인 종교적 의례보다 내면의 신앙을 강조한 결과다. 이를 통해 내밀성과 진정성의 가치가 근대인들에게 알려졌고, 낭만주의에 이르러 부르주아 계급의 의식 속에 널리 유포되었다. 예컨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혈통 또는 백작이니 공작이니 하는 신분적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간 내면에 깃든 고결한 진정성이라는 식이다. 괴테의 베르테르가 ‘교양있는’ 시민이 귀족 흉내나 내며 식탁의 상좌를 차지하려 다투는 모습을 힐난하며, 보다 진정어린 마음의 태도로서 사랑의 고귀함을 역설했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내밀하고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 내면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마다의 내면에 자리한 진정성은 계급과 세대, 사회 전체의 집합적 심성으로 구조화된다.³¹⁾ 이것이 우리가 낭만적 사랑을 근대 유럽에서 나타

30)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275쪽 이하.

31) 사회적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암묵적이고 집합적인 ‘마음’이 그것인 바, 특정 사회에 귀속되는 주체의 행식을 산출하는 심성장치라 할 만하다. 흥미롭게도, 근대 사회에서 마음의 개인성은 사회라는 집단에 반목하기보다 그 반목의 행식을 통해 거꾸로 집단에 소속되는 역설을 갖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통치성의 구

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감정이 객관화된 현실태로 간주하는 근거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내밀성과 진정성의 집결지가 되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령 근대 사회에서 가족생활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보호받는다. 국가의 통치질서 역시 이와 같은 가족 관념의 확대·연장선에서 이해될 때 최대의 설득력을 갖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이렇게 가족적 의미와 가치의 진정성에 연결되었다.

(3) **아이와 가정, 가족주의** — 엄밀히 말해, 근대적 의미의 가족 개념은 중세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달리 말해,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아니라 혈통(linage)의 계승이라는 관념으로 결합된 가문이 중세를 지배했다.³²⁾ 개인 간의 감정적 통합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념은 17세기어나 등장한 새로운 표상이었다.³³⁾ 앞서 진술한 대로, 가족은 개인 및 사적인 것(사생활)과 불가분의 관련 속에 발전해 왔다. 부부와 자녀를 기축으로 삼는 가족 개념의 실례는 어린이의 개념 및 주거양식의 발달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드러지게 목격된다. 예컨대 16세기 이전에는 집 ‘안’과 집 ‘밖’은 별개의 공간이 아니었다. 아이가 가정만큼이나 길 거리에서 자라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17세기를 경과하며 아이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 아이는 가정 내에서 소중히 보호받아야 하고, 어른과 구분되는 양육과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³⁴⁾ 아이가 갖는 순진무구와 미성숙, 유약함 등의 이미지, 그리고 올바르게

현에 해당된다.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파문학동네, 2009, 24쪽. 우리가 사랑을 사회적 감응장치로 규정짓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 놓인다.

32) 유희수, 「11-12세기 프랑스 귀족사회의 사랑과 성」, 한국서양사학회 편, 『서양의 가족과 성』, 당대, 2003, 56-57쪽. 이는 11-12세기에 성립한 가부장 중심주의와 장자계승의 전통과 맞물린 사회적 현상이었다.

33) 아리에스, 『아동의 탄생』, 558쪽.

34) 아리에스, 『아동의 탄생』, 634-635쪽. 아동에 대한 관심은 아동기율의 발달과도 병행적으로 증대되었다. 같은 책, 648쪽.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져야 한다는 통념은 낭만적 사랑 및 결혼의 관념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어머니’와 ‘모성애’의 관념이 대표적이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인자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서, 아이를 위해 자신마저 희생하는 고귀한 존재로 표상되며 추앙받았다. 낭만적 연인은 이제 자애로운 모성의 담지자로서 아이를 보살피고 가족을 지키는 존재로서 정체화되는 것이다.³⁵⁾ 이렇게 낭만적 사랑은 결혼과 출산, 모성애를 통해 화목한 가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완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가족은 근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 인식되면서 완성된다. 개인의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걱정에서 출발한 사랑의 감정은 제도와 규범의 인정 속에서 비로소 실제적인 것으로 정립되었다.³⁶⁾ 우리가 낭만적 사랑을 사회적 감응장치의 하나로 간주하고 그 역사·사회적 경과를 지켜보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소통과 행위양식으로서 낭만적 사랑은 규범화된 문법과 문화적 관행을 통해 수행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를 재생산하는 기초 단위인 가족을 형성했다.³⁷⁾ 만일 개인의 정념적 관계인 사랑이 사회의 객관적 관계로 전화하는 이 유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면, 재산과 소유권에 대한 이론으로 이를 보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시민사회의 근본 원리가 사적 소유권의 인정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헤겔에 따르면 가족은 그 소유권의 본질적인 원천으로서 철학적으로 승인되어 있었다. 그런데 자녀의 출가와 혼인(새로운 가족의 창출)의 과정은 이 같은 재산의 공동소유를 개별소유로 바꾸고, 시민사회의 구성과 더불어 개인의 소유권으로 확립되기에 이른다.³⁸⁾ 근대적 개인 주체의 공적 인정이 그의 사적 소유권의

35) 새리 엘 서러, 『어머니의 신화』, 박미경 옮김, 까치, 1995, 266쪽.

36) 찰스 테일러,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옮김, 이음, 2010, 164쪽.

37) “감정은 집합적인 문화적 범주와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의 사소통이다.”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박형진 외 옮김, 이학사, 2014, 각주 4번.

38) 게오르크 헤겔, 『법철학』, 임석진 옮김, 지식산업사, 1990, 290(§171), 325(§199)쪽.

보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민사회 내부에서 욕망의 투쟁 즉 물질적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³⁹⁾ 이로써 낭만적 사랑은 정치경제학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근거를 얻는다.⁴⁰⁾ 근대 사회의 근본적 억압기제의 하나로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당의(糖衣)에 의해 마비되어 왔던 탓이다.

5. 탈근대, 사랑의 담론을 넘어서

낭만적 사랑은 문법이고 코드다. 사랑이 뽑어내는 신화적 아우라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행위의 유형이자 패턴이며, 도식적 실천의 효과라 할 수 있다. 그 감정적 강도와 주관적 만족감, 소위 인간적 풍요로움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으로 사회적 감응장치의 하나로서 낭만적 사랑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근대의 문화적 유산임에 틀림없다. 요컨대 문화적 메커니즘으로서 사랑이 제도와 규범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상호소통과 관계형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하고 근거짓는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독자적 판단이나 사고, 결단을 넘어서는 구조의 힘으로서 낭만적 사랑의 문화정치학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근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의 선형적 토대일까?

39) 악셀 호네프트·낸시 프라이저, 『분배냐, 인정이나?』, 김원식 외 옮김, 사월의책, 2014, 231-246쪽. 근대 사회의 진정한 문제소가 인정의 문화적 갈등에 있는지 혹은 경제적 분배의 갈등에 있는지는 두 철학자의 논쟁을 더 지켜볼 일이지만, 소유권과 그 정당성 담론이 가족과 개인, 사회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40)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31쪽; Eli Zaretsky,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Harper & Row, 1976, ch. 2-3. 부(자본)의 분배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계급투쟁에서 국가는 중재와 지배를 통해 통치성을 공고히 한다. 아쉽게도, 근대적 사랑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는 우리의 주제를 넘어서기에 다음 과제로 미루어두겠다.

사랑의 역사는 동시에 사랑에 관한 담론-이야기의 역사다. 인간 존재를 움직이는 본원적인 충동에 대해 이 자리에서 해명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그 충동을 묘사하고 서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용될 만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대와 중세, 근대의 사랑 관념과 그 인식, 그리고 사회적 문법과 코드화의 과정들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낭만적 사랑의 감수성은 200여 년 전 서구의 특정한 조건 속에서 발명되고 세공됨으로써 당대 사회와 문화의 기준으로 자리잡은 관행의 모델에 다르지 않다.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통해 쓰여지고 읽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근대인들 역시 낯선 사랑의 규약들을 익히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체계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웹소설, SNS를 통해 낭만적 사랑의 문법을 배우고, 그로써 사회적 의사소통의 규율을 체화하고 있다. 비록 탈근대의 여러 새로운 현상들이 시대사적 절단의 증표로서 제시되는 한편으로 낯선 문화적 규범과 체계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낭만적 사랑이라는 무의식적 감응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집단 형성적 코드로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낭만적 사랑 또한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으로서 출현한 역사가 있으며, 담론-이야기의 형태를 통해 근대 사회사를 관통해 왔다는 사실이다. 모래사장 위에 그려진 인간의 얼굴이 파도에 쓸려나가듯, 근대적 인식의 체계도 언젠가 종적없이 사라질 시대가 오리라는 푸코의 예언은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는 근대적 감정으로서 낭만적 사랑 또한 어느 사이엔가 개인과 집단을 형성하는 또 다른 감응적 장치로 대체될 미래를 그려보지 못할 까닭이 없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던 궁극적 이유 중 하나다.

서두에 언급했던 대로, 사유리가 동양인 정자제공자를 찾지 못해 서양인의 정자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단지 ‘임신’과 ‘출산’이라는 용

어의 동일성 때문에 가족주의가 일부 변용된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근대 가족은 사회와 단단히 결합하여 발전해 온 국가주의 및 자본주의의 기초 단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종적이고 민족적이며 국민적인 동일성을 배면에 깔고 있었다. 이 점에서 결혼 없는 출산으로 알려진 사유리의 이야기는 근대 사회와 단절한 새로운 가족의 출발점이자, 결혼 없이도 이루어지는 자기애의 신호탄처럼 읽힐 만하다. 당연하게도, 낭만적 사랑이 조만간 소멸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벌써 ‘다른 사랑’, 또는 낭만적 사랑 그 자체의 급진화로서 ‘낮선 사랑’의 가능성들이 피어나는 현장들을 목도하고 있을지 모른다.⁴¹⁾ 계급과 성별의 통제를 통해 특정한 사회문화적 전형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로써는 포착 불가능할 만큼 낮선 생성의 광경, 즉 감각의 이질적 교환과 혼성적 결합을 통해 전혀 생소한 공-동(共-動)의 관계가 생겨나는 장면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했다. 그것은 필시 근대 너머의 새로운 공동체가 싹을 틔우는 감응의 순간일 것이기 때문이다.

41) 가문의 이해관계에 따라 혼인을 결정짓던 오랜 관습에 대해 개인의 감정과 열정에 의거해 파트너를 결정하려는 낭만적 사랑은 실상 대단히 전복적인 근대의 경향 중 하나였다. 2자관계의 순수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려 했던 움직임이었기 때문이다.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 외 옮김, 새물결, 1999, 82쪽.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탈이성애적 사랑의 새로운 흐름은 어떤 의미에서 낭만적 사랑의 재급진화라고 부를 만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과제로 미루어 두겠다.

■ 참고문헌

- 구레비치, A. 『개인주의의 등장』, 이현주 옮김, 새물결, 2002.
- 기든스, A.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 외 옮김, 새물결, 1999.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 꼬르벵, A. 『창부』, 이종민 옮김, 동문선, 1995.
- 딜덴, R. 『개인의 발견』, 최윤영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5.
- 들로르, R. 『서양중세의 삶과 생활』, 김동섭 옮김, 새미, 1999.
- 레디, W. 『감정의 항해.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 혁명』, 김학이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 루만, N.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정성훈 옮김, 새물결, 2016.
- 르브뤽, F. 『옛 프랑스인의 부부생활』, 주명철 옮김, 까치, 1994.
- 메이, S. 『사랑의 탄생』, 김지선 옮김, 문학동네, 2016.
- 바바렛, J. 엮음. 『감정과 사회학』, 박형신 옮김, 이학사, 2009
- 보통, A.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정영목 옮김, 청미래, 2007.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김한영 옮김, 은행나무, 2016.
- 바이저, F.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김주휘 옮김, 그린비, 2011.
- 볼만, Sch.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 조이한 외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12.
- 벌린, I. 『낭만주의의 뿌리』, 강유원 외 옮김, 이제이북스, 2005.
- 벡, 울리히 외.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배은경 외 옮김, 새물결, 1999.
- 살스비, J.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옮김, 민음사, 1985.
- 서러, Sh. 『어머니의 신화』, 박미경 옮김, 까치, 1995.
- 아감벤, G.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양창렬 옮김, 난장, 2010.

- 아리에스, Ph. 『아동의 탄생』, 문지영 옮김, 새물결, 2003.
- 아리에스, Ph. 외, 『사생활의 역사 4』, 진수연 옮김, 새물결, 2002.
- 알튀세르, L. 『재생산에 대하여』,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7.
- 와트, I. 『소설의 발생』, 전철민 옮김, 열린책들, 1988.
- 유희수. “11-12세기 프랑스 귀족사회의 사랑과 성.” 한국서양사학회 편, 『서양의 가족과 성』, 당대, 2003.
- 윌리엄스, R.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박만준 옮김, 지만지, 2009.
-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7.
- 일루즈, E.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박형신 외 옮김, 이학사, 2014.
- 최진석, 『감응의 정치학. 코문주의와 혁명』, 그린비, 2019.
- 테일러, Ch.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옮김, 이음, 2010.
- 파워, I. 『중세의 여인들』, 이종인 옮김, 즐거운상상, 2010.
- 포터, A.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노시내 옮김, 마티, 2016.
- 푸코, M.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2012.
- 플랑드랭, J. L. 『성의 역사』, 편집부 옮김, 동문선, 1994.
- 호네트, A. · 프레이저, N. 『분배냐, 인정이냐?』, 김원식 외 옮김, 사월의 책, 2014.
- 홍길표. “근현대의 사랑 혹은 낭만적 사랑의 발명 — 괴테의 『친화력』,” 『괴테연구』 23호, 2010.
- 헤겔, G.W.F. 『법철학』, 임석진 옮김, 지식산업사, 1990.
-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가 쏘아올린 화두”, 『경향신문』 2020년 11월 19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81703001&code=940100 (검색일: 2021.1.28.)
- “사유리가 ‘서양인 정자’ 기증받은 게 잘못인가요?” 『서울신문』 2021년 1월 28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8500152&wlog_tag3=naver (검색일 2021. 1.28)

Arendt, H. *The Human Con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Zaretsky, E.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Harper & Row, 1976.

Лотман, Ю. *Беседы 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Быт и традиции русского дворянства (XVIII - начало XIX века)*, Искусство-СПБ, 1994.

Пушкин, А. “Евгений Онеги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5, Наука, 1978.

❖ ABSTRACT

The Myth and History of Romantic Love :
The Modernity of Social Emotions and Its Critical
Genealogy

Choi, Jin-Seok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SeoulTech)

In general, love is often regarded as one of the many private emotions and experiences that an individual can have during their lifetime. However, on the contrary, it is a collective and public mentality that leads to the social institutions of marriage and family, as well as the formation of society itself. The structure of these feelings, which emerged around the 18th century, holds a psychological component that has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construction of individual identity and the conception of social belonging in Modern society. Throughout Modern cultural history, however, love has continued to be portrayed as a very private and intimate experience, with the idea of “Romantic Love,” still quite common even in this present moment. Accordingly, love is an exchange of sincerity between heterosexual couples, institutionalized through marriage and completed by childbirth. The so-called, “Myth of Romantic Love,” is an effective dispositif introduced by modern civil society in order to build a mechanism for reproduction, and its influence is gradually being lost in the Post-Modern era of the 21st century. By analyzing the conventional notion of Romantic Love, this article examines how marriage, family, and childbirth were related to the launch and continuation of Modern civil society, and looks at the future prospects

of this social convention.

Key Words : Romantic Love, Structures of Feeling, Social Mentality,
Modern Civil Society, Affective Apparatus

■ 논문접수일 : 2021. 02. 10

■ 심사완료일 : 2021. 03. 14

■ 게재확정일 : 2021. 03. 15